

[기아]EV3 유럽 본격 판매·IRA 7,500달러 수혜... 기아 주가 재평가 신호?(2024년_3Q)

종목명 : 기아 (000270)

컨콜일 : 24년 10월 넷째주

Key points

📌 핵심 결론

- 2024년 3분기 KIA는 품질 비용 이슈에도 불구하고 본원적 이익과 수익성 모두 견조하게 유지하며, EV3·하이브리드 확대와 함께 연간 가이드언스를 상향 조정함..

NEW 이번 콜 신규 업데이트 포인트

- 람다2 엔진 품질 비용 6,310억 반영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10.9% 달성
- EV3 유럽 출시 본격화 및 미국 IRA 보조금 수혜 본격 대응
- 연간 가이드언스 매출/이익 모두 상향 조정, 자사주 추가 소각 발표

1. 주가 상승 모멘텀

- EV3·HEV 중심으로 유럽 및 미국 친환경차 비중 확대 전략 본격화
- 2025~2026년 대규모 신차 출시 라인업 확보로 수요 선점 기대
- 본원적 영업이익 3조 5,130억 원 수준 → 일회성 비용 제외 시 수익성 견조

2. 주가 하락 리스크

- 소형차 공급 제약 및 품질 이슈로 단기 수요 공백 발생 가능성
- 미국 관세/정치 리스크로 IRA 보조금 수혜 지속 불확실성
- 유럽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판매 감소 영향 지속 우려

3. 이번 콜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3.1. 실적 변화 요인

- 람다2 품질 비용 6,310억 반영으로 보고 영업이익은 2.88조 원
- ASP 상승, 비용 절감, 환율 우호 효과로 이익 방어

3.2. 믹스/수주/가동/비용 등 핵심 드라이버

- RV 및 HEV 믹스 개선, EV3 유럽 출시, 미국 HEV 확대
- 인도 쏘넷 GT라인 확대로 신형시장 성장 견인
- 인센티브 증가에도 비용 절감 및 제품 가격 효과로 상쇄

3.3. 다음 분기/향후 일정(모델/양산/투자/거점)

- 4분기: EV3 유럽 본격 판매, 카니발 HEV 미국 출시
- 2025~2026: K4, 타스만, EV4, EV5, PBV 등 신차 집중 출시
- 미국 메타플랜트 가동 시작, 2025년부터 EV6/EV9 IRA 보조금 수혜

4. 실적 현황

4.1. 분기 실적 현황

- 매출: 26.52조 원 (+3.8% YoY)
- 영업이익: 2.88조 원 (이익률 10.9%)
- 품질 비용 제외 시 영업이익: 3.51조 원 (이익률 13.2%)

4.2. 사업부별 실적

- RV 믹스와 HEV 중심의 친환경차 판매 증가
- 유럽은 보조금 축소로 판매 부진, 북미는 스포티지/텔루라이드로 성장

4.3. 실적 요약

- 글로벌 ASP 5.8% 상승 → 3,640만 원
- 도매 판매: 76.4만 대 (-1.9% YoY)

4.4. 재무 현황

- 부채비율: 67.5% (전년말 대비 5.7%p 개선)
 - 자사주 잔여분 50% 추가 소각 발표
-

5. 사업 추진 현황 및 전망

5.1. 시장 현황(업황)

- 글로벌 수요는 2.2% 감소
- 인도는 +12%, 중국은 ICE 수요 감소로 -10%

5.2. 신사업 진행 상황

- EV3 유럽 출시에 이어 EV6/EV9 현지 생산 통한 IRA 대응
- PV5 기반의 로보택시 → 그룹 SDV 협력과 연계

5.3. 투자 계획

- 메타플랜트(미국 조지아) 가동 → HEV 생산 우선
- 2025~2026년 신차 대응 위한 라인업 및 생산 확장

5.4. 생산/거점/내재화/증설 관련 내용

- 광명 EVO 및 타스만 설비공사 일시적 영향 종료
 - 4분기 전 공장 정상 가동 예정
-

6. 회사 소개

6.1. 사업소개

-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PBV를 아우르는 전 라인업 보유

6.2. 밸류체인 및 고객사

- 북미, 유럽, 인도 중심의 글로벌 판매망

6.3. 핵심 경쟁력

- HEV 및 전기차 제품군 강화
 - 고수익 RV 중심 믹스 구조
-

7. Q&A

Q. 램다2 엔진 품질 비용이 현대차보다 큰 이유와 재발 가능성은?

A. 대상 차량이 약 36만 대로 더 많고, 총당금 산정 방식이 더 보수적이기 때문. 14~17년식 중심으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추가 적립 가능성은 낮고, 소싱 공장도 달라 타사와 연계된 이슈는 아님.

Q. PBV 관련 웨이모 협력 및 현대차와의 역할 구분은?

A. 그룹 로보택시 기본 플랫폼은 KIA의 PV5를 기반으로 하며, 웨이모 협력은 SDV 기술 축적을 위한 전략. KIA는 양산 및 특화 기술 공급에 집중.

Q. 미국 메타 플랜트 가동 상황과 보조금 수혜 시점은?

A.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하이브리드 수요에 맞춰 램프업 속도를 조정 중. 내년부터 EV6, EV9의 현지 생산으로 IRA 전액 보조금(7,500불) 수혜를 목표.

Q. 미국 대선 및 관세 리스크 대응 전략은?

A. 수익성을 위해 물량을 포기하지 않으며, 내년부터 EV3, 4, 5 등 볼륨 모델 확대를 통해 전기차 판매를 본격화.